

[세미나]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 일시: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자유기업원 세미나

2020년 6월 18일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 라는 공식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중립은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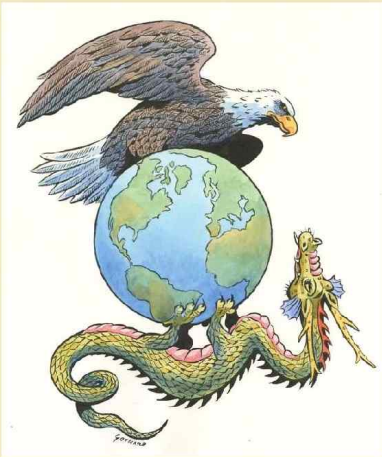
법적으로 한국은 미국 편, 한미동맹이 있느니..

Power Politics 적으로 한국은 승자의 편 ... 그런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 --> 국력, 미국과 중국 대외정책의 의 정확한 평가,

노무현 시대의 Balancer 론
이명박 시대의 중국 전략적 협력자론
박근혜 시대의 미-중 등거리 외교론
문재인 시대의 적극적인 친-중 정책





**Princeton BA
Georgetown MA, Ph.D
1984-**

"Yes, America Is in a Cold War With China." "그렇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냉전 중이다."

Some lessons from the Soviet era apply: Seek bipartisan consensus and allies, and avoid armed conflict.

By Mike Gallagher (R)
June 7, 2020 12:51 pm ET The Wall Street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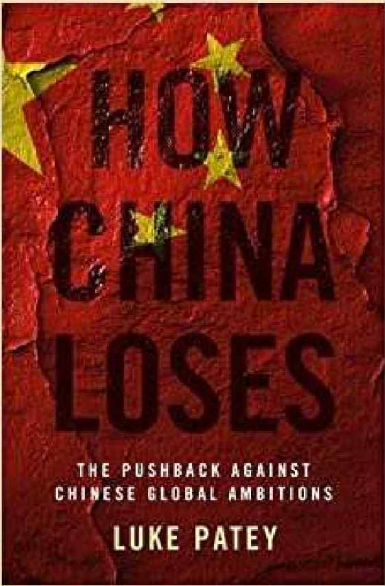
3



Luke Patey
Senior Researcher, Foreign Policy

Luke Patey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Lea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University of Oxford. His research focuses on China's global rise, Chin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hinese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China's relations with Europe, Africa, and Latin America, and East Asian security. Patey is a co-author of *The New Fringe of Greater China: India, and the Global Challenge for China in South and South-South* (Pearl, 2014) and co-editor of *Southern Asia: China, India, and the Politics of Asian Aspirations* (James Currey, 2011) with Daniel J. L. He has published scholarly articles i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African Affairs*, *Middle East Policy*, *Third World Quarterly*, and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Patey has written for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The Guardian*, *The Mirror*, and *Vice News*. He has been a visiting scholar at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Tokyo), 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otsdam), Peking University (Beijing), and the British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 York). Patey holds a BSc (Hons.) in Commerce from Queen's University (Kingston) and a MSc and PhD from the Copenhagen Business School.





4



China / Military

US destroyer spotted off coast of Shanghai as PLA Navy begins 11-week exercise in Yellow Sea

- America 'playing with fire' by allowing warship to sail close to Chinese territory at such a sensitive time, military expert says
- USS Rafael Peralta is second US destroyer sighted in Yellow Sea in less than a month

SCMP, 2020.5.15.

미국이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중국 영토 아주 가까이 미국 군함들을 향해 하도록 허락 함으로써 **불장난을 하고 있다.**

미국 군함 Rafael Peralta는 지난 한달이내 서해에 진입한 두번째 미국 함정.



5



China opposes deployment of U.S. stealth ship in South Korea

By Elizabeth 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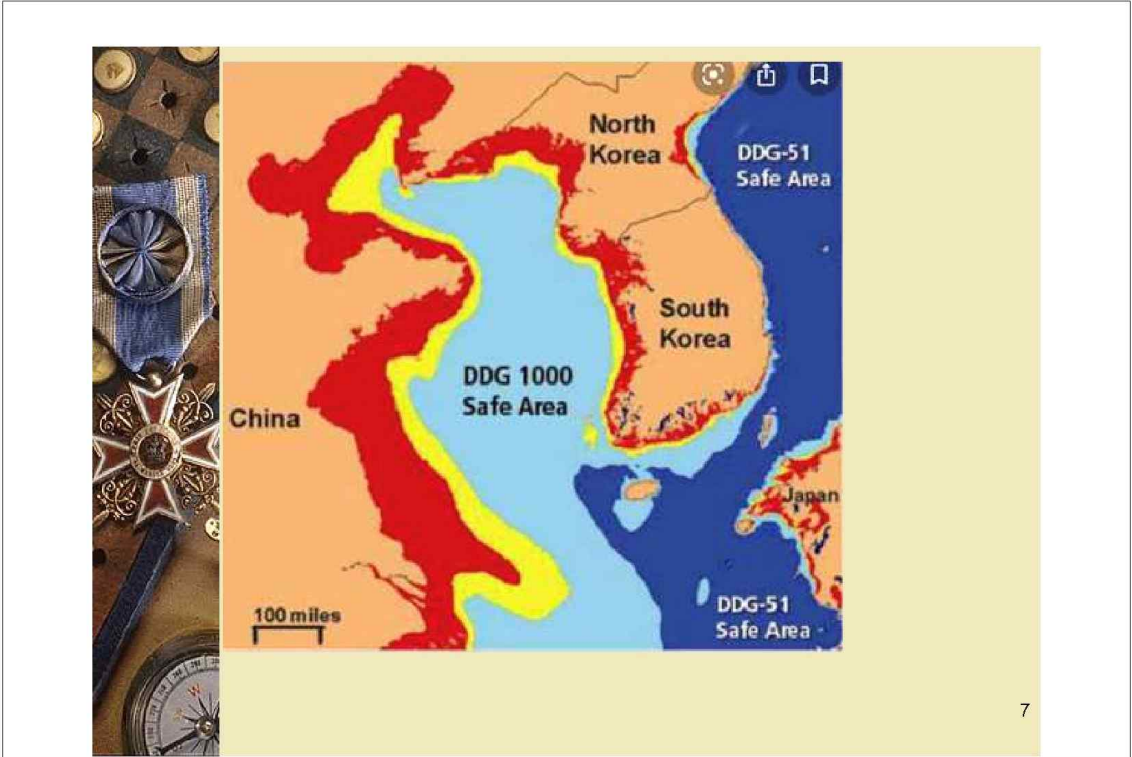
China says it is "watching closely" U.S. plans to deploy the USS Zumwalt, a multi-mission stealth ship, near the Korean peninsula. Image courtesy of U.S. Navy

Feb. 7 (UPI) -- China voiced its opposition to a U.S. proposal to deploy the USS Zumwalt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 development that Beijing says it is "watching closely."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7/02/07/China-opposes-deployment-of-US-stealth-ship-in-South-Korea/9251486478203/
2017. 2. 7.

대만해협, 서해 등에 미국 군함이 다니는 것을 중국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6





June 5 2019 (UPI) -- The United States Seventh Fleet has deployed a U.S. Coast Guard ship in the Yellow Sea in waters near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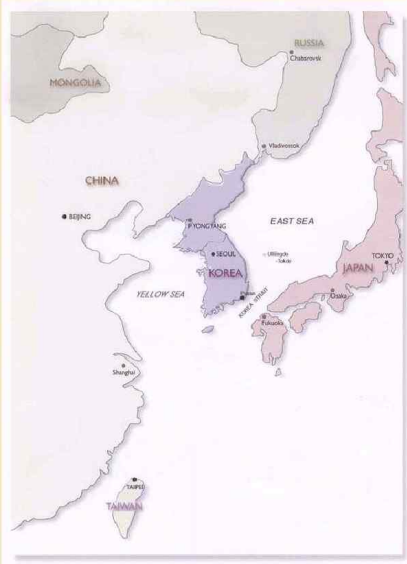
The Seventh Fleet stated on its Facebook page on Wednesday the U.S. Coast Guard Cutter Bertholf, WMSL 750, is on duty in the Yellow Sea.



9



한반도의 지정학: 한국은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규정되는 나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



철칙들

1. 영토를 접한 나라는 결코 진정한 우호국이 될 수 없다. (세계모든 전쟁의 90%가 국경이 붙은 나라 사이에서 발생)
2. 원교근공(遠交近攻) 원칙 친구는 먼 곳에 있다.

이웃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는다.

10



미국은 세계의 패권 유지를 국가 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 역시 미국의 국가 대 전략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Linchpin** 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시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한국의 통일을 반길 유일한 강대국



중국은 대대적인 허위정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Sleepy Joe Biden 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미국을 지난 수십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미국을 등쳐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1. Instagram



BIDEN CAMPAIGN SENIOR FOREIGN POLICY ADVISER HITS TRUMP ADMINISTRATION O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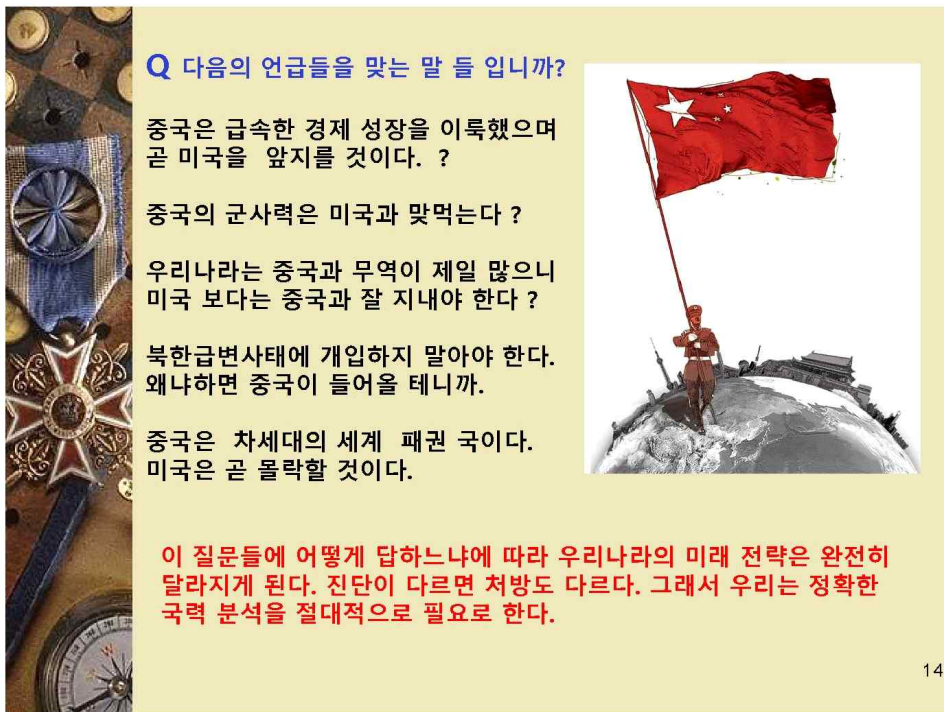
"President Trump has talked tough on China, but he has failed to take any meaningful stand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And that is why it is no surprise China's leaders hope for four more years of President Trump."

ANTONY BLINKEN MAY 27

Antony John Blinken
(born April 16, 1962)

Biden 의 외교담당 보좌관 Antony Blinke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다. United States Deputy Secretary of State from 2015 to 2017 and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rom 2013 to 2015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오바마 대통령 국가안보 부 비서관

13



Q 다음의 언급들을 맞는 말 들 입니까?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 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

북한급변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올 테니까.

중국은 차세대의 세계 패권 국가이다. 미국은 곧 몰락할 것이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국력 분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14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G1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은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문제인 동시에 수천 년 동안 국경을 맞대온 우리 한반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중국인들이 오늘을 이루어내는 동안 겪은 삶의 애환과 고달픔도 우리의 경험과 다를 게 무어랴. 그 이야기를 두루 엮어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G1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정래 작가의 말 2013년 7월 정글만리 간행 후

정말 그럴까? 정말이라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15



국제정치학자들은 경제학자, 소설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G2라는 용어는 한국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국이라는 의미의 G2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일상화돼 있다. 미국은 아직 중국이 자기와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서 G2라 부르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처럼 국제사회의 관리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향이 없어서 이 표현을 삼간다. 일본은 자기네가 들어 있지 않은 표현이니 쓰지 않는다.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다음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대 박철희 교수

조선일보 시론
'스윙 스테이트'로 인식되는 위험성
2015.4.13.
중에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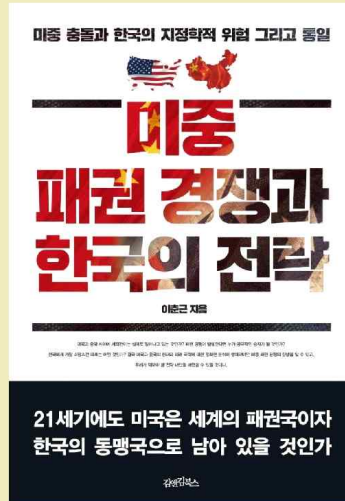


미·중 양국이 다투고 있다

이 와중에 있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국력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싫던 종던
Power Politics 일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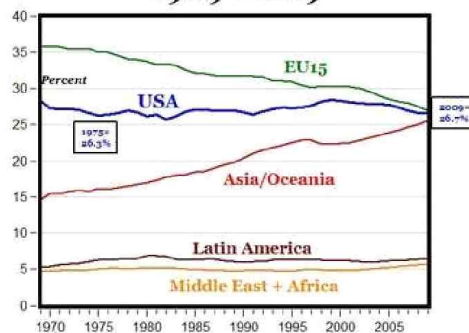
2016.5.27. 김 앤 김 북 스

17



Reviv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e of World GDP 1969-2009



사실 미국은 상대적으로 decline 한 적이 없다.

18



China Faces Economic Collapse and Decoupling From World Markets, Expert Says

August 29, 2019 13:41, Last Updated: August 30, 2019 13:49

By Olivia Li , Epoch Times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Aug. 23 announced on Twitter a new round of **raising tariffs on \$55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and **telling U.S. companies to move their operations out of China**. China expert Frank Xie believes that when the trade war has escalated to this level, it will bring **devastating consequences to China's economy**, but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the United States.



Dr. Frank Tian Xie

John M. Olin Palmetto
Chair Professor in Business,
Univ. of South Carolina

중국의 임박한 경제 붕괴, 미국의 간단
한 승리를 예상하는 중국계 미국 경영
학교수

19



Peter Zeihan 은 2019년 10월 13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통일을 이룩할 가능성은 중국이 생존할 가능성 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역으로 중국의 생존 가능성은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할 가능성 보다 낮다는 말이다. Peter Zeihan 은 중국의 미래를 가장 비참하게 보고 있는 다수의 미래 전략가 중의 한 명일 것이다. 그는 최근 저서에서 아시아의 챔피언은 중국이라고 단언.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 전략 이론가들 like Edward N. Luttwak 그리고 미래학자들 like George Friedman 인구통계학자 like Nicholas Eberstadt 등은 중국의 미래를 아주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다.

20



A Failure of Leadership, Part III: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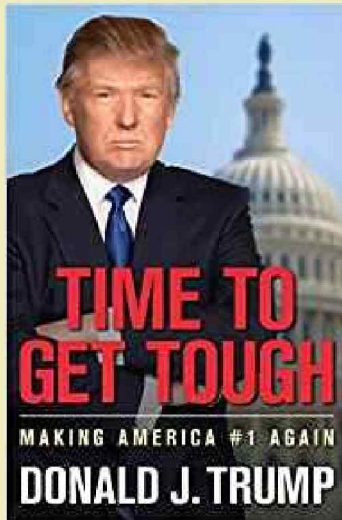


By Peter Zeihan
May 15, 2020



21





Regnery Publishing; First
Edition (December 5, 2011)

"China is Our Enemy" its
time we start acting like it..."
p. 48.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이라고 말
했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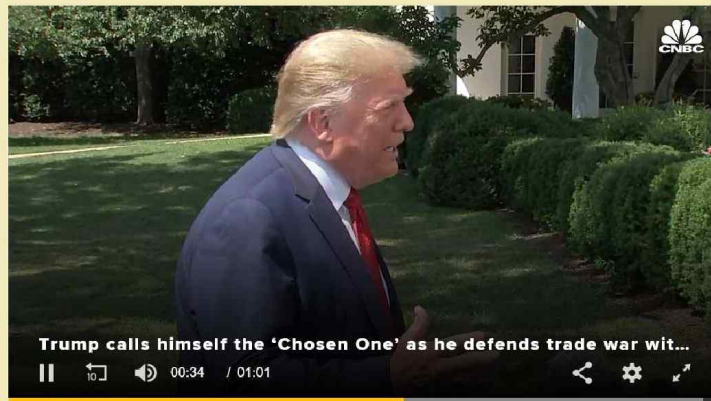
그러나 미 중 패권 경쟁은 정치
가 개인의 정책성향에 의한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 힘의 구조 변
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22



I am the Chosen One,' Trump proclaims as he defends trade war with China 전임 대통령이 이미 했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Aug 21 2019 • 7:46 PM EDT CNBC



In Trade War with China "WE ARE WINNING."

23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Foreign Policy 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 기고한 글(2011년 11월호) 에서 미국의 미래 전략을 단순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 결정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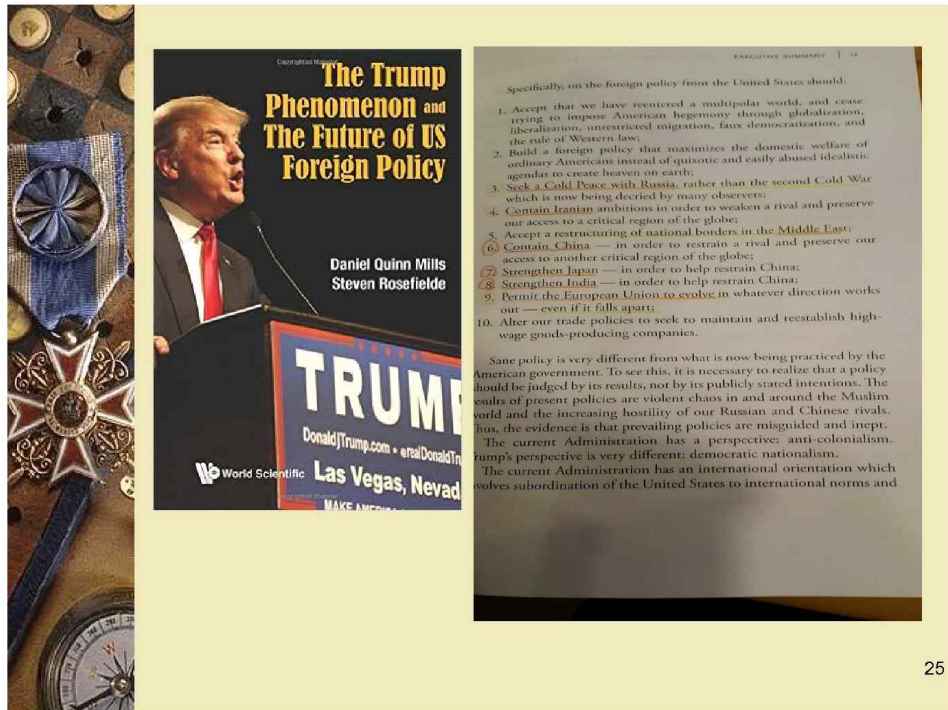
America's Pacific Century

"The future of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Hillary Rodham Clinton
미 국무장관 (2009-)

24



25



26



Anti-Globalist **Steve Bannon** Embraces Cold War Era Group to Curb China's Rising Threat

반 글로벌리스트 **배넌** 중국의 위협을 막기위한 **냉전 그룹**에 가입하다.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By Davis Richardson • 03/26/19 6:20pm Observer



27



State Department Preparing for Clash of Civilizations with China / Joel Gehrke/ April 30 2019

미국 국무부 중국과 **문명의 충돌** 전쟁을 준비하다.
조엘 거크 기자 2019.4.30. *The Washington Examiner*



Joel is a foreign affairs reporter for the Washington Examiner. He previously was on the congressional beat at National Review Online and prior to that was a commentary writer for the Examiner.

28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team is developing a strategy for China based on the idea of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n history.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치르는 대단히 다른 문명과의 싸움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This is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United States hasn't had that before," Kiron Skinner, the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State Department, said Monday evening at a security forum in Washington, D.C.

"미국은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을 해 본 역사가 없다."

Dr. Kiron Skinner

(국무부 정책 기획 국장) 4.29 저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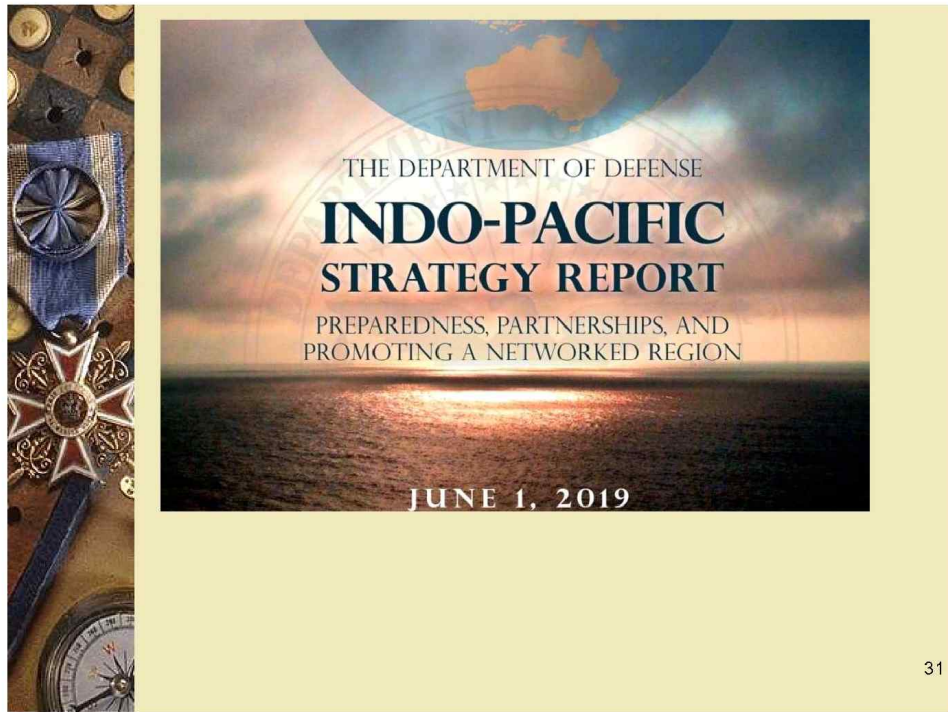


Kiron Kanina Skinner (born 1961) is the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Previously, she was the Taub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s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the founding director of several entities at the university, including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Washington Semester Program,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s, Institute for Politics and Strategy, and the Institute for Strategic Analysis. She is also the W. Glenn Campbell Research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s Hoover Institution.



Harvard Ph D

30



31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평화적으로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도전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저지하려는 작업을 진행 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Dr. Edward N. Luttwak

32



중국에서 재일 부자 1,000명 중 160명이 seated either the Party Congress or national legislature. 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

이 160명의 총 재산: 2,210억 달러

미국 입법, 사법,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 660명의 총재산의 약 20배

중국 고위 간부 시진핑을 주석으로 뽑은 160명의 재산 평균이 미국 고위 간부(입법/사법/행정부)관리 660명 평균 재산의 82.5배

End of an Era by Carl Minzner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mining Its Rise (2018)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중국에서 재일 부자 1,000명 중 160명이 seated either the Party Congress or national legislature. 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

이 160명의 총 재산: 2,210억 달러

미국 입법, 사법,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 660명의 총재산의 약 20배

중국 고위 간부(160명) 평균 재산: 13억 8,125만달러 (1조 6,575억원)

미국 고위 간부(660명) 평균 재산: 1,674만 2,424 달러 (200억9090만 8,800원)

End of an Era by Carl Minzner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mining Its Rise (2018)

33



중국: 2020 5.28 폐막된 양회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커 창(李克强)총리의 언급:

중국인중 월수입 1,000 元(15만원)이하가 5.6억 명
월수입 2,000 元(30만원) 이하가 9억 6,400만명
14억 인구 중 1억 명이 년 25,000 달러(한국 돈 3000만원)를 벌고 산다. (월 250만원): 중국의 사회불안요소 **심각한 빈부격차**



34



중국경제: 2020.6.3.
안유화 교수

1-3월 소비감소: -15%
4월 소비감소 : -7.5% 전년대비
업무 복귀 율: 전면 대비 80%
중국 정부 발표 부가가치 +3.5 % 는
Non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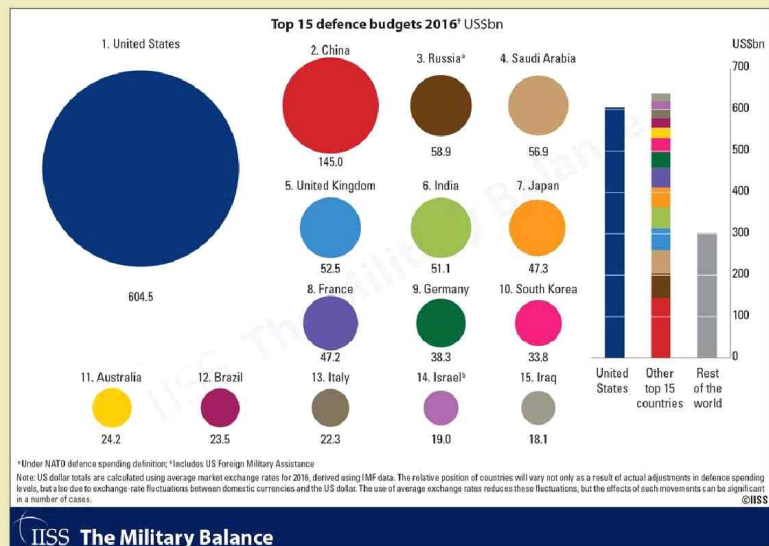


중국은 매년 13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금년도 대졸자가 835만 명. 경제가 1% 성장할 경우 20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4.5 %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 최소한 .
그런데 너무 낮아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다.

농민공 2억 6,000만 현재. 이미 1.3 억 명은 귀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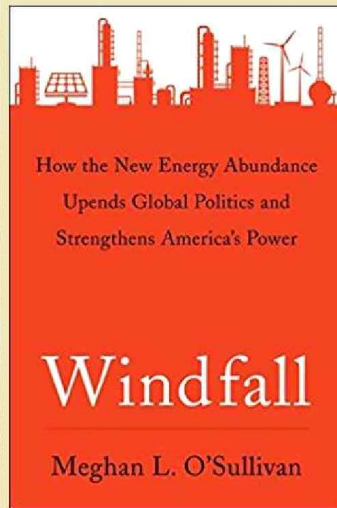
안유화(安玉花), 병음: Ān Yùhuā 안위화, 한자음: 안옥화, 1971년
2월 22일 ~)는 중국 태생의 한국인 경제 전문가이다. 연벤 대학
교수, 2016년 이후 성균관 대학교수

35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국 군사력을 당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2017년 미국 국방비는 7,000억 달러로 증액.
2019년 미국 국방비는 7160억 달러 한국은 국방비 세계 10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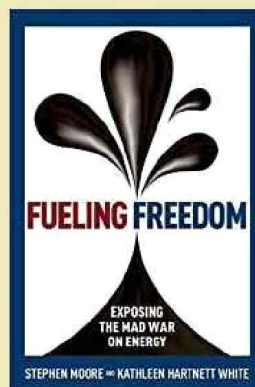


미국의 석유의 풍부함은
미국인들이 **횡재(橫財)**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The advantages of this new abundance are greater than its downside for the US: it strengthens American hard and soft power. This powerful book describes how new energy realities creates a strategic environment to America's advantage. **Meghan L. O'Sullivan** (born September 13, 1969) is a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on Iraq and Afghanistan. She is Jeane Kirkpatrick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senior fellow at Harvard, Kennedy School.



37



Stephen Moore ,
Kathleen Hartnett
White, *Fueling
Freedom: Exposing
the Mad War on
Energy* (Washington
DC.: Regnery, 2016),
p.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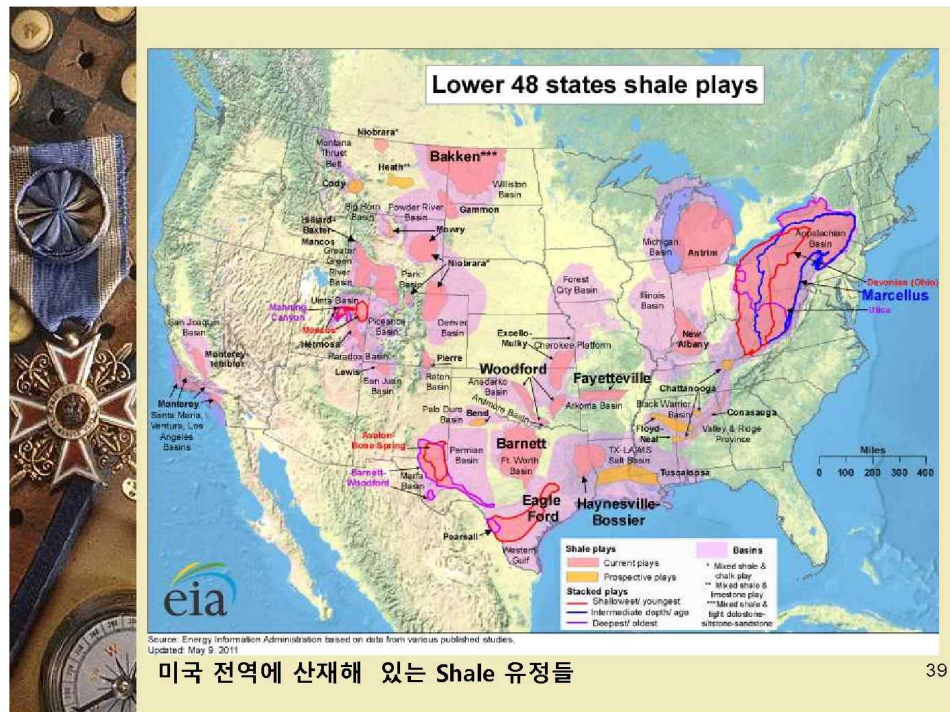
America has more recoverable energy Supplies than any nation-by far. We have more oil and natural gas than Saudi Arabia, Iran, Russia, China , and all of the OPEC nations **combined**.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 그 외 모든 OPEC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 Joseph S. Nye, Jr.
- 최근 Rocky 산맥에서의 Shale Oil 은 그 추정치가 무려 2조 배럴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미국이 혼자 쓰면 300년)
- 미국은 앞으로 500년 쓸 석유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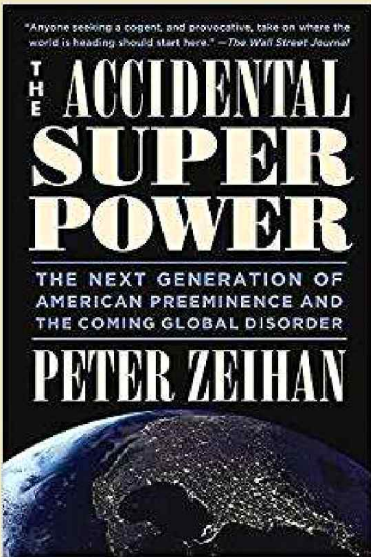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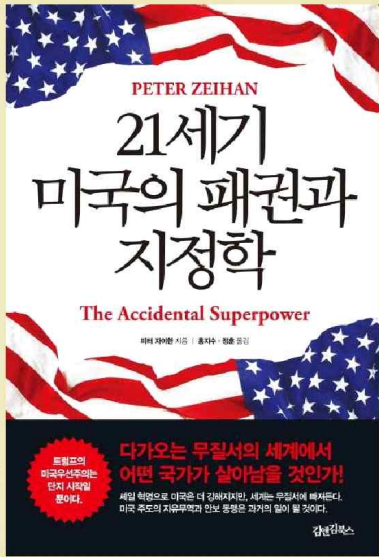
39



40



2014.11.4. 원판



2018. 7.30. 한국어판

41





중국 남지나해에 있는 섬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 같은 곳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다. **인공 섬은 영해와 영공을 가지지 못한다**

This satellite image by DigitalGlobe and released b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shows what is claimed to be an airstrip at Fiery Cross Reef in the Spratly Islands in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AFP Photo/ Digitalglobe)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즉각 주변국들의 대응을 야기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올 8월 아세안지역안보 포럼에서 남 중국해의 인공섬 매립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 결국 미국 군함은 10월 27일 중국 인공 섬 12해리 이내 지역을 항행,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2



BEIJING (AP) — A U.S. Navy warship sailed past one of China's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on Tuesday, in a challenge to Chinese sovereignty claims that drew an angry protest from Beijing and accusations that the move threatened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peace.

China's Foreign Ministry said authorities monitored and warned the **USS Lassen** as it entered what China claims as a 12-mile (21-kilometer) territorial limit around Subi Reef in the Spratly Islands archipelago, a group of reefs, islets, and atolls where the Philippines has competing claims. 2015.10.27. AP

43



US B-52 bombers fly near islands claimed by China

Washington (AFP) - Two US B-52 bombers flew close to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ed by Beijing and were given verbal warnings from a Chinese air traffic controller, the Pentagon said. November 13, 2015



44



French, British Ships to Sail Disputed Asian Sea, Rile China

June 15, 2018 4:16 AM Ralph Jennings V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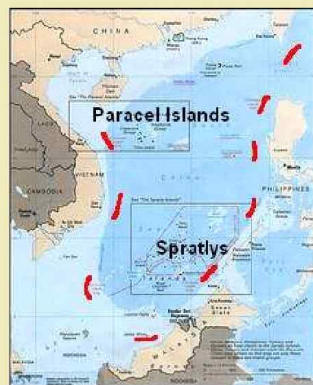


A French Navy Captain looks at the French Navy frigate Montcalm arriving at the naval base in Toulon, France, Aug. 1, 2014. French and British warships will sail the South China Sea in a display of naval strength.



British Royal Navy destroyer HMS Duncan is seen during a port visit in Istanbul, Feb. 19, 2018.

45



The Nine-Dash Line—at various times also referred to as the "10-dash line" and the "11-dash line"—refers to the undefined, arguably located, demarcation line used initiall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ROC / Taiwan) and subsequently also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for their claims of the major part of the South China Sea. The contested area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es the

Paracel Islands,[a] the Spratly Islands, and various other areas including the Pratas Islands, the Macclesfield Bank and the Scarborough Shoal. The claim encompasses the area of Chinese land reclamation known as the "great wall of sand". An early map showing a U-shaped eleven-dash line was published in the then Republic of China on 1 December 1947.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 9단선.

46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범위가 인도양 까지 확대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49



-능력주의와 일당 독재가 결합된 중국식 거버넌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식 거버넌스는 78년 이후 매우 인상적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점들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중국식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법치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수십 년처럼 공산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올바른 정책을 구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근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중앙일보] 2015.05.08 00:21



후쿠야마 교수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고통스러운 개혁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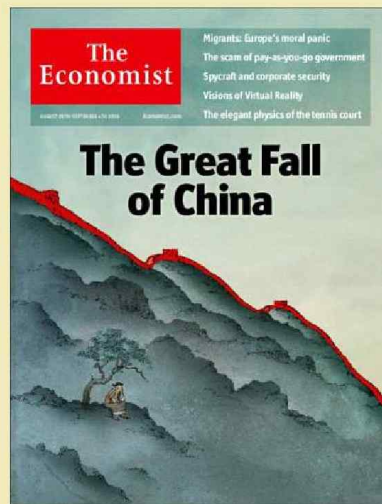


China's real estate developers are starting to feel a liquidity pinch.

Many of China's investment properties are of poor quality with low rental yields. ... In such an environment, REITs become pure capital appreciation plays.

, Fitch Ratings Inc. (2015년 봄) 거품붕괴는 치명적, 중국에 빈집이 8000천만 채라는 보고도 있다.

51



‘용(중국)’의 기침에 세계 경제가 떨고 있다. 신흥국 증시는 ‘중국 발 (發) 바이러스’에 단체로 독감에 걸린 듯 휘청거렸고, 선진국 시장 까지 폭락하며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세계 증시를 강타한 ‘차이나 쇼크’에 놀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중국은 허약한 경제 체질과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중증환자”라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에 미칠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진단하느라 분주하다. ... 현동식 소장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하를 통해 달러당 6.8위안 이상 올려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동시에 중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 2015.8.29)

52



중국 경제의 몰락을
통제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
과 시진핑 주석을 묘사
한
이코노미스트 표지

January 16th 2016

중국의 경제가 경 착륙
일지 연착륙일지는
모르지만
착륙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53



China's economy is dangerously close to unraveling

Market Watch

Published: Feb 20, 2017 6:54 a.m. ET

The country's debt is rising dramatically, while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is slowing.

중국의 경제는 지금 간단치 않다.

국가의 부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침체 중이다.

인구통계 자료는 지구 국가들 중 중국이 거의 최악이다.

조선산업도 붕괴 중이다. 679개 조선소 중 510곳이 휴업 중이다. 중국조선업은 생산과잉, 기술력 부족, 업황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철도회사가 낸 누적 적자는 중국 **GDP 의 6 %** 에 이른다.

54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Dilemma

에버슈타트 박사는 이를 중국사회에서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인간적 인 비극(a slow motion humanitarian tragedy already underway)** 이라고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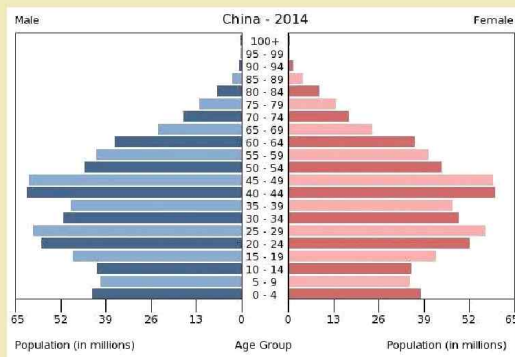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요녕성, 길림성 등은 년 평균 소득이 겨우 1,000 불 정도(2001년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을 접했을 때 이미 부자가 된 노인이라 본다면 중국은 가난한 채 노령기를 맞이할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07: 100 이상 되는 것은 도저히 있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 한다.

중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982년생의 경우 남녀 비율이 108.5: 100 이었다. 1990년의 경우 111:100, 1995년의 약식 조사에 의하면 115:100 이상이었다. 2000년 11월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해 남녀 출생 비율은 120:100 이었다. 믿기지 않는 이 같은 놀라운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앞으로 재앙 수준의 폭동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노동인구 2100년: 2015년의 50%
미국의 노동인구 2100년: 2015년의 120%

55



Age structure: 0-14 years: 17.1% (male 124,340,516/female 107,287,324)
15-24 years: 14.7% (male 105,763,058/female 93,903,845)
25-54 years: 47.2% (male 327,130,324/female 313,029,536)
55-64 years: 11.3% (male 77,751,100/female 75,737,968)
65 years and over: 9.6% (male 62,646,075/female 68,102,830) (2014 est.)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파탄과 고노[ⓧ] 옆의 도표.

현대국가 국력 평가의 두 번째 기준인 인구통계학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고, 양질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모든 산업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파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다.

56



China faces plenty of other of issues that range from the strategically hobbling to the truly system-killing.

- **China suffers from both poor soils and a drought-and-floodprone climatic geography.** Its farmers can only keep China fed by applying five times the inputs of the global norm. This only works with, you guessed it, bottomless financing. So when China's financial model inevitably fails, the country won't simply suffer a subprime-style collapse in ever subsector simultaneously, it will face famine.

- **The archipelagic nature of the East Asian geography fences China off from the wider world,** making economic access to it impossible without the very specific American-maintaine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of the past few dec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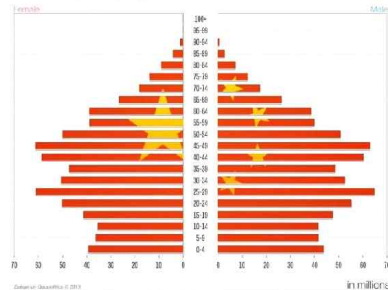
- **China's navy is largely designed around capturing a very specific bit of this First Island Chain, the island of Formosa** (aka the country of Taiwan, aka the "rebellious Chinese province"). Problem is, China's cruise-missile-heavy, short-range navy is utterly incapable of protecting China's global supply chains, making China's export-led economic model questionable at best.

- **Nor is home consumption an option.** Pushing four decades of the One Child Policy means China has not only gutted its population growth and made the transition to a consumption-led economy technically impossible, but has now gone so far to bring the entire concept of "China" into question in the long-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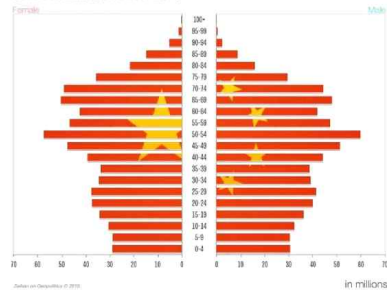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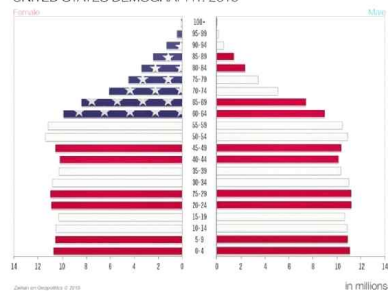
CHINA DEMOGRAPH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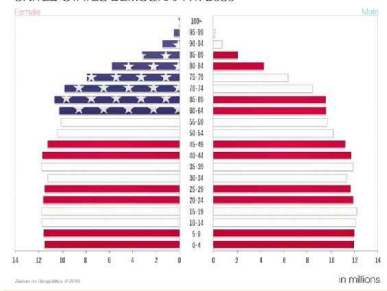
CHINA DEMOGRAPHY: 2040



UNITED STATES DEMOGRAPHY: 2015



UNITED STATES DEMOGRAPHY: 2030



58



李春根

연세대학교 정외과, 동 대학원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졸업(정치학박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저,역서: 북한 핵의 문제 (著 1995)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譯, 2004)
새로운 제국 중국 (譯, 2005)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著, 2007.1.8)
21세기 국제자원쟁탈전 (譯, 2008.12)
군인과 국가 (공譯 2010)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 (공저 2011)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저, 2012)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저, 2012)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저, 2012)
격랑의 바다: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전략 (역, 2014)
격동하는 동북아와 한국의 책략 (저, 2014)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저, 2016)
10월 유신과 국제정치 (저, 2018)
전쟁과 국제정체 (저, 2020)
등 24 권 저서 및 역서 간행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강의 파일은 2020년 6월 18일 자유경제연구원 세미나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본 강의에 인용된 자료는 모두 공개된 자료(학술서적, 신문, 방송 뉴스, 논문, 잡지 및 internet source) 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4일 AM)

59

미국·중국 충돌과 외교적 선택¹⁾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 미·중 ‘패권 전쟁’ 또는 ‘전략 경쟁’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정치를 바꾸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슈퍼 파워(Super Power)로서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하며 동시에 선진 모범국의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국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보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확진자가 212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1만7000명에 이르는 등 국제사회 리더십의 실종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재선을 위태롭게 한 중국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응징에 나섰다. 이것이 미·중 갈등의 선거 공학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중 갈등은 미국이 중국의 ‘나쁜 행위들(bad behaviors)’을 용인하며 자유민주국가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을 뿐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의 측면을 가진다.²⁾

물론 지금의 미·중 갈등이 과거 냉전시기 미·소간의 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갈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권 경쟁(hegemonic competition)’이 아닌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중요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 미·소 대결과 달리 양진영에 소속된 국가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중국 진영에 속한 국가라고 해박야 북한, 쿠바를 꼽을 정도로 친중(親中) 진영이 왜소하기 때문이다. 또 미·중 군사 대결이라고 해야 동북아, 동남아에 국한되어 과거 미·소의 대결과 달리 전 세계로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중요하게 지적될

1) 본 글은 김인영, “[다산칼럼] 모두에게 버림받을 양다리 외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 2020년 6월 16일자에 실린 내용을 확대한 것임.

2) ‘패권’은 영어의 ‘헤게모니(hegemony)’를 번역한 것이다. ‘패권 전쟁’은 ‘hegemonic war’로 강대국의 전이(transfer)를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의 주요한 학문분야다.

‘패권’을 구성하는 요인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영토, 인구 등 다양하다. ‘power’에 대한 정의와 같이 정의하기 어렵고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물론 시간에 따라 패권을 구성하는 요인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 기술력의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뒤진다는 객관적 평가는 거의 없다. 또한 미국이 가진 매우 중요한 힘은 국제사회가 미국이 만든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s)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패권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현재 그러한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 측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유로(EURO)와 위안화의 도전이 있었지만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61.94%(2018년 3분기 기준), 유로의 비중은 20.48%, 위안화의 비중은 1.8%이다. 미국이 가진 달러의 발권력 또는 달러 패권만으로도 미·중 패권전쟁은 전쟁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중 갈등은 아직 물리적 자원이 동원되는 전쟁의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미·중 군사대치도 동북아에 국한되어 언론에서는 ‘동북아 신(新)냉전’ 정도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의 갈등이 ‘글로벌 패권경쟁’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 첫째,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와 달리 영토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의 선점이며, 기술 경쟁의 측면에서 중국이 놀라운 추격을 보이고 있고 일부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 성격 때문에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미국이 앞선 알고리즘 부분에서의 우위를 상쇄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의 정보처리 능력을 좌우할 슈퍼컴퓨터 경쟁의 경우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일방적 리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우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전 세계 톱500 슈퍼컴퓨터’ 순위에선 미국 에너지국(DO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서밋’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톱500 슈퍼컴’ 대수 경쟁에서 중국이 219대, 미국이 116대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으나, 성능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38.4%를 차지하여 중국(29.9%)을 앞서고 있다.³⁾ 다시 말해 기술패권의 대표적인 부분인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서 미·중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미·중 충돌은 무역, 기술, 군사적 영향력에서의 경쟁으로 다면적 차원의 대립을 보이고 있어⁴⁾ 과거 미·소 냉전의 이념 대립(ideology competition)과 다르다. 그래서 패권경쟁처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보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보고서에서 지금의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두 체제가 장기적 전략 경쟁상대에 있다(“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1) 경제적 도전(Economic Challenges), (2) 가치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Our Values), (3) 안보에 대한 도전(Security Challenges)의 3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1) 미국인과 미국영토, 미국의 생활방식을 지키고(protect the American people, homeland, and way of life), (2) 미국의 경제번영을 지키며(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4)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것(advance American influence)을 약속하고 있다.

3) 백지영, “미·중 슈퍼컴퓨터 경쟁, 올해도 치열,” 『디지털데일리』, 2019년 6월 18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2532>.

4) 니얼 퍼거슨은 최근의 미·중 충돌을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면적인 분쟁”으로 규정한다. 안별, “과거 미·소 냉전, 무역전쟁과 달라...경쟁국과 동맹국 급속하게 갈릴 것,” 『조선일보-위클리 비즈』, 2020년 6월 12일, p.3.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roduction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PRC was largely premised on a hope that deepening engagement would spur fundamental economic and political opening in the PRC and lead to its emergence as a constructive and responsible global stakeholder, with a more open society. More than 40 years later, it has become evident that this approach underestimated the wil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o constrain the scope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in China. Over the past two decades, reforms have slowed, stalled, or reversed. The PRC'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engagement with the world did not lead to convergence with the citizen-centric, free and open order as the United States had hoped. The CCP has chosen instead to exploit the free and open rules-based order and attemp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system in its favor. Beijing openly acknowledges that it seeks to transform the international order to align with CCP interests and ideology. The CCP's expanding use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to compel acquiescence from nation states harms vital American interests and undermines the sovereignty and dignity of countries and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To respond to Beijing's challenge, the Administration has adopted a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based on a clear-eyed assessment of the CCP's intentions and actions, a reappraisal of the United States' many strategic advantages and shortfalls, and a tolerance of greater bilateral friction. Our approach is not premised on determining a particular end state for China. Rather, our goal is to protect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s articulated in the four pillars of th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We aim to: (1) protect the American people, homeland, and way of life;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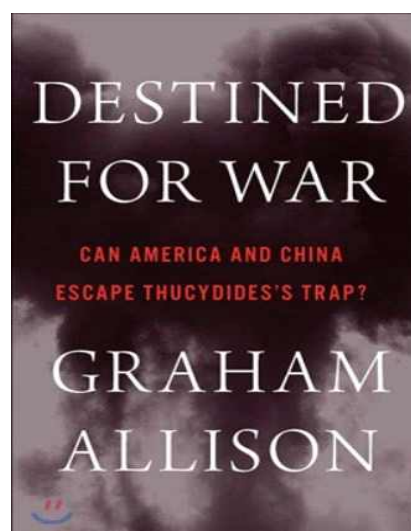
Our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has two objectives: first, to improve the resiliency of our institutions, alliances, and partnerships to prevail against the challenges the PRC presents; and second, to compel Beijing to cease or reduce actions harmful to the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Even as we compete with the PRC, we welcome cooperation where our interests align. Competition need not lead to confrontation or conflict. The United States has a deep and abiding respect for the Chinese people and enjoys longstanding ties to the country. We do not seek to contain China's development, nor do we wish to disengage from the Chinese people. The United States expects to engage in fair competition with the PRC, whereby both of our n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can enjoy security and prosperity.

Prevailing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RC requires cooperative engagement with multiple stakeholders, and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building partnerships to

셋째, 패권 경쟁 시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적대감’과 ‘대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두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전자는 도전을 그만두면 되지만 미국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도전을 피할 수 없다. 피한다면 그것은 도전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겠다는 신호이며 또한 굴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대중국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 감성에 기대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세계 각국에 마스크를 지원하거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며 반중국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발원국의 이미지와 늑장 대응, 코로나19를 감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난이 워낙 커서 단기간에 반중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거기에 중국정부가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과거 제국주의에 유린되었던 치욕의 상황과 연계시켜 관제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대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두려움으로 미국과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미·중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2. ‘투키디데스의 함정’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설명하며 기존 강대국과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사이에 “과연 전쟁이 필연적이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의 말을 빌어 전쟁으로 이끄는 근본적 원인은 지배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구조적 긴장이 얼마나 깊은 기에 달려 있지만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주요 동인으로 이해관계, 두려움, 명예의 세 가지를 든다.⁵⁾ 미·중은 이미 일대일로 추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 무역분쟁,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제정,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수입중단, 난사군도 분쟁 등으로 구조적 긴장은 깊어져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는 이미 갈등관계에 들어서 있다. 다음은 ‘두려움’인데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행위를 “아테네가 끝없이 팽창하며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을 잠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스파르타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에 도달해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명예’는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트럼프의 명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또 재선을 가능하게 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꿈의 실현이다. 그런데 이 꿈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꿈인 ‘중국몽(中國夢)’과 공존불가능의 갈등관계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시진핑의 꿈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꿈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재선과 역사에 남을 대통령의 업적이지만, 시진핑에게는 3연임과 더 나아가서 모택동을 능가하는 업적인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반열에 올려놓는 역사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꿈이자 명예다.



5)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Graham Allison, *Destined War*)』, 서울: 세종서적, 2018, p.79.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자의 꿈을 향한 명예를 건 패배할 수 없는 한 판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동남아의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동북아의 대만, 일본, 그리고 호주를 포섭하여 중국을 지리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중국은 사사건건 미국에게 “참견 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미·중은 패권을 건 열전(熱戰)에 돌입할 것인가. 중요한 예시가 있다. 6·25 전쟁 당시 북·중 국경으로 몰려드는 유엔군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참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다. 하지만 미 정보국은 이 경고를 과소평가했으며 결국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격돌했다. 그리고 각각 3만5천, 15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중이 상호 위협을 넘어서 열전으로 전환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상자가 지나치게 크다. 달리 말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동북아 열전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1세기 미래 패권을 좌우할 기술 선점을 향한 기술 패권경쟁은 전쟁 차원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 문제는 한반도다

문제는 한반도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국과 떼어 수 없는 전통적 핵심 이해관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대사관은 청와대와 주요 인사를 향해 미국을 등지고 중국 편에 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요즈음 북한이 갑자기 탈북인권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진을 트집 잡고, 미국에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시점과 최근의 미·중 대결의 격화와 사드장비 반입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Alibaba)가 인수한 이후 친중(親中) 영문매체로 분류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하는 확대 G7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며 시진핑의 방한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흘리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이 해야 할 대(對) 미국, 한국 견제를 북한이 대행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⁶⁾

4.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가?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중국대륙 방향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위치한 태평양으로의 진출로 번영을 이루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6) 김여정의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부상과 대남 강경 대응 기조를 볼 때 김정은-김여정의 역할분담, 북한 권력구조 변화의 가능성 등이 주요 배경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 남한, 대 미국 강경 기조를 중국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중국의 배후설, 중국 용인설, 북한이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공을 들였던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버리고 동북아 신냉전에서 좀 더 친중 성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다.

7) 김인영, “그들은 왜 중국에 집착할까,” 『자유경제에세이』,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20년 3월 15일의 결론 부분을 수정함.

경제적 격차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도 대륙으로의 투자가 아닌 해양진출을 통한 무역으로 만들어 냈다.

하지만 미·중 패권전쟁에서 중국과 연대하자는 소위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내고 경제를 융성하게 했던 해양으로의 진출 패러다임은 끝났고 이젠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대륙으로 진출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 일본이 해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로와 철도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시장경제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북한과 극동러시아에 어떠한 경제적 기회가 있을지 부정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군사, 외교에서의 패권전쟁이 모두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미국의 특징은 인류 역사상 영토적 야심이 가장 적은 패권국이며 상대에게 군사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패권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세계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 물론 미국이 중국을 G-2의 일원으로 대우해 준 것이지만 - 아직까지 세계가 공감하는 가치(value) 내지는 보편 이념(ideology)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마는 점령국들에 ‘법’과 ‘법치’라는 가치를 제공하며 제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에 기술혁신을 제공했고, 자유무역이라는 규범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세계를 빈곤에서 풍요로 이끌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전 세계에 번영을 가져왔다.

중국을 지금 세계에 어떠한 내용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1인 지배체제, 강력한 사회동원력, 공산당에 의한 감시와 통제, 국가 통제경제를 중국적 가치로 전 세계에 제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동의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찾기 힘들다.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북한조차도 중국적 패권질서 속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음에서 중국적 가치의 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조셉 나이(Joseph Nye)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주변국들의 호감을 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기들끼리 서로 단합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충고하고 있다.⁸⁾

중국식 통치 또는 중국식 패권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저는 제 손자·손녀가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다.⁹⁾ 때문에 최근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홍콩을 보안법으로 자유가 통제되는 사회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서 세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8) 조셉 S. 나이, 이기동 역,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서울: 프리뷰, 2015, p.210.

9) 힐러리 클린턴의 말.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Graham Allison, *Destined War*)』, 서울: 세종서적, 2018, p.221.

5. 대한민국의 선택은?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선택은 항상 어렵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올바른 선택이었으며 지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 번영국가로의 길도 멀고 북핵에서 안전하지도 못하다. 대중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것도 북한 트집 잡기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외교는 아니다. 무대응 외교는 굴종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양자 모두에 버림받는 외교적 선택임을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균형자론’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경험한 바 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제시한다. 한미동맹의 원칙 속에 한중우호 확대라는 실리의 추구, 적극 외교와 조용한 외교의 조화, 일본 등 주변국과 화해하고, 새로운 우방을 적극 찾아 나서며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자강(自強)의 길을 가는 명민(明敏) 외교(prudent diplomacy)가 절실하다.¹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제시하는 위기 시대의 지도자, 즉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날 국운(國運)이 남아 있을지?

10) 본 글에서는 미·중 충돌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대응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변경과 대중국 투자와 수입의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 스스로 위험을 헷징(hedging)할 것이므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옳다.

코로나19로 세계는 중공(中共)의 실체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한국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반년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바꿔놓을 국제정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더욱 심화될 미중(美中) 간 갈등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다툼이 낳을 세계질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양극으로 갈린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거세어진 압박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견디지 못하고 크게 흔들릴 것이란 예상이다. 체르노빌 사건이 소련 붕괴의 전조(前兆)였던 것처럼, 코로나가 “중국의 체르노빌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또 다른 견해는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한다는 전망이다.²⁾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영어권 및 유럽 등의 자유진영은 전자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연대를 맺고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와 정치권 및 주류언론은 후자의 의견,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큰 정부와 보편적 복지의 ‘뉴딜’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³⁾ 현 정부와 거대여당도 이 흐름을 타 ‘한국판 뉴딜’을 밀어붙이고 있다.⁴⁾ 이는 국내 소위 지식인들과 주류언론의 심각한 친(親)중편향을 반영한다. 출판계도 친중 입장의 해외 서적들을 우선적으로 들여오고 있어서 여론은 더 기울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 가려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초기 은폐시도와 계속되는 거짓말을 상기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본질적 원인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반중(反中)으로 하나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로 읽고, 여전히 중국몽(夢)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흔들며 깨워야 한다.

-
- 1) Jamil Anderlini, “Xi Jinping faces China’s Chernobyl moment,” February 10, 2020,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6f7fdbae-4b3b-11ea-95a0-43d18ec715f5> (accessed June 17, 2020)
 - 2)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s,” *Foreign Affairs*, March 18,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3-18/coronavirus-could-reshape-global-order> (accessed June 17, 2020)
 - 3) 예. 한겨레, “장하준, ‘코로나 사태는 신자유주의 바꾸는 계기’,” 2020년 4월 24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917.html (2020년 6월 17일 열람)
 - 4) 정부24, “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2020년 6월 1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74390> (2020년 6월 17일 열람)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국정부, 정확히는 중국공산당에 있다는 것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정부는 반성은커녕 진실을 계속 왜곡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틈타 자유진영의 여론을 혼란시켜 중국의 체제 선전적 야욕을 관철하려하고 있다.

우선 작년 11월 우한에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중국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들을 처벌해왔다. 12월 30일 신종코로나의 존재와 위험을 세상에 처음 알린 우한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들은 한밤 중 공안에 끌려가 자아비판 각서를 쓰고 풀려날 수 있었다. 리원량은 한 달 뒤인 2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⁶⁾

중국의 검색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신종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이 차단되었고,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을 알린 천추스(陳秋實)와 팡빈(方斌) 등 여러 시민기자들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수개월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팡빈은 우한의 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비닐에 싸인 시신들을 찍은 영상을 올린 직후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지만, 며칠 후 다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⁷⁾

더 경악할 사실은 중국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사람 대 사람 감염 사실여부를 대외적으로 부인하며 세계를 안심시키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방대한 양의 방역물자들을 중국으로 사재기해 들였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1월 20일이 되어서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성을 대외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그 달 초부터 중국은 마스크와 의료장갑 등의 방역 관련 물품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동시에 해당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년 5월 초 공개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수술용 마스크의 수입은 전월 대비 278%, 의료가운은 72%, 의료장갑은 32%씩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의료장갑 48%, 의료가운 71%, 마스크

5) Olivia Enos, "Hold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countable for Its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Heritage Foundation Report*, May 12, 2020,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holding-the-chinese-communist-party-accountable-its-response-the-covid-19-outbreak> (accessed June 17, 2020)

6) BBC, "Li Wenliang: Coronavirus death of Wuhan doctor sparks anger," February 7,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1409801> (accessed June 17, 2020)

7) Yew Lun Tian, "Chinese citizen journalist resurfaces after going missing in Wuhan," *Reuters*, April 23,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hina-journalist/chinese-citizen-journalist-resurfaces-after-going-missing-in-wuhan-idUSKCN22515X> (accessed June 17, 2020)

48%, 의료 환풍기 45% 씩 감소했다.⁸⁾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8만 4천명 선에서 멈춰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정부가 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경제성장률부터 각종 통계기록들을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지난 4월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분포도, 그리고 타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 등으로 추정했을 때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백 90만 명에서 4백만 명일 것이라고 보고했다.⁹⁾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공산당 산하 기관이 구축 중인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중국 내 실제 확진자를 최소 64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¹⁰⁾ 또한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우한 내 화장터 활동을 분석해보면, 우한에서만 중국 공식 통계의 최소 10배인 4만 6천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¹¹⁾

지난 3월 초 발표된 영국 사우스햄튼(Southampton)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여행제한과 환자격리 등의 ‘비약물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가 지금보다 한 주 전에 취해졌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최소 66%까지 제한되었을 것이며, 2주 전이었다면 86%, 3주 전이었다면 95%까지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¹²⁾ 그렇다면 중국정부가 최초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한 12월 말부터 투명하게 세계에 진실을 공개하고 NPI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면, 코로나의 전 지구적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른 아닌 중국 사회주의의 폐쇄성과 고의적 은폐라는 것이다.

8) SCMP, "Coronavirus: China hid details of outbreak to hoard medical supplies, DHS report says," May 4,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82680/coronavirus-china-hid-details-outbreak-hoard-medical-supplies> (accessed June 17, 2020)

9) Derek Scissors, "Estimating the true number of China's COVID-19 cases," *AEI Report*, April 7, 2020,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estimating-the-true-number-of-chinas-covid-19-cases/> (accessed June 17, 2020)

10) Isaac Stone Fish, Maria Krol Sinclair, "Leaked Chinese Virus Database Covers 230 Cities, 640,000 Updates," *Foreign Policy*, May 12,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5/12/leaked-chinese-coronavirus-database-number-cases/> (accessed June 17, 2020)

11) Radio Free Asia, "Estimates Show Wuhan Death Toll Far Higher Than Official Figure," *VOA*, March 27, 2020,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estimates-show-wuhan-death-toll-far-higher-official-figure> (accessed June 17, 2020)

12) University of Southampton, "Early and combined interventions crucial in tackling Covid-19 spread in China," March 11, 2020, <https://www.southampton.ac.uk/news/2020/03/covid-19-china.page> (accessed June 17, 2020)

미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가 반중(反中)

미중관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꾸준히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태와 사이버첩보행위, 아시아 공해(公海) 등에서의 군사적 위협, 국제 친중 여론조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과 디커플링(decoupling, 공급망 분리를 통한 무역의존도 감소)의 정당성과 명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지금까지 국제적 공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언론이 묘사하는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거친 독단적 행보는, 국제사회는 물론 많은 자유진영 우호국과 동맹들도 동조하거나 가까이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실리적으로 깊이 엮인 여러 나라들은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이를 통해 드러난 중국 공산당의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적 실체는, 최소한 자유진영이 미국의 반중전선에 함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게 하고 있다.¹³⁾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전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작년 10월 미국 기업의 66%가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3월에는 44%만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¹⁴⁾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하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국정부의 양심 불량 태도도 자유진영의 반중연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세계 각국에 의료물자 물량공세에 나선 중국의 ‘마스크외교’도 역풍을 맞고 있다. 일단 중국정부가 지원한 방역마스크 등의 의료물품이 절반 이상 불량품으로 드러나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4월 승인했던 중국산 방역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고, 네덜란드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은 절반가량

13) Steven Erlanger, “Global Backlash Builds Against China Over Coronavirus,” *New York Times*, May 3, 2020, <https://www.nytimes.com/2020/05/03/world/europe/backlash-china-coronavirus.html> (accessed June 17, 2020)

14) Trefor Moss, “Pandemic Makes U.S.-China Economic Breakup More Likely, U.S. Businesses in China Say,”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020, <https://www.wsj.com/articles/pandemic-makes-u-s-china-economic-breakup-more-likely-u-s-businesses-in-china-say-11587113926> (accessed June 17, 2020)

이 품질불량으로 판정돼 리콜조치를 해야만 했다.¹⁵⁾ 스페인과 터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중국산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¹⁶⁾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코로나를 먼저 ‘극복’하고 유럽과 북미를 포함해 세계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뒤바뀐 상황을 두고, 중국정부가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베이징의 도움에 공개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인해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표명해야 한다는 고발도 나왔다.¹⁷⁾ 도가 지나친 ‘생색내기’ 외교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설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위기를 틈타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중국의 야욕은, 이렇다 할 열매를 맺기보다 도리어 많은 국가들의 반중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호주는 또한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 국제조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 수입에 80.5%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했다.¹⁸⁾ 호주 대학 전체 학생의 무려 10%를 차지하는 중국유학생들과 전체 관광객의 14%에 해당하는 중국관광객들의 호주 방문을 금지하기까지 했다.¹⁹⁾ 자국의 무역과 자국민들의 문화교류를,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교무기’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대외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호주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호주가 추진하는 코로나 팬데믹 독립조사 진행 결의안에 무려 116개 국가가 지지한 것이다.²⁰⁾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수입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중 입장을 취하고 있다.

15) 한국경제, “‘착용 하나마나한 수준’ 美 FDA, 中 마스크 인증 무더기 취소,” 2020년 5월 8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087186i> (2020년 6월 17일 열람)

16) 아시아경제, “스페인·터키·네덜란드까지… 中 ‘마스크 외교’ 퇴색시킨 불량품,” 2020년 3월 30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3007533588159> (2020년 6월 17일 열람)

17) Lara Zhou, “Coronavirus: why China’s ‘mask diplomacy’ is raising concern in the West,” SCMP, March 28,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77333/coronavirus-why-chinas-mask-diplomacy-raising-concern-west> (accessed June 17, 2020)

18) 매일경제, “‘코로나책임’ 발언에 中 발끈, 호주産 보리에 반덤핑 관세,” 2020년 5월 19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12554/> (2020년 6월 17일 열람)

19) 매일경제, “中, 잇단 호주 때리기…이번엔 유학·관광 금지,” 2020년 6월 10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96458/> (2020년 6월 17일 열람)

20) The Guardian, “Australia hails global support for independent coronavirus investigation,” May 18, 2020,

<http://theguardian.com/world/2020/may/18/australia-wins-international-support-for-independent-coronavirus-inquiry> (accessed June 17, 2020)

이렇듯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견제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어젠다 (agenda)이거나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실체에 드디어 눈을 뜨고, 오랫동안 눈감아왔던 중국공산당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보다 본질적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만 여전히 중국몽(夢) 꾸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적 반중대열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생산 공급망을,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함께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바로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Keith Krach) 경제차관이 지난 6월 외교부에 설명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가 그것이다.²¹⁾ EPN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시아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심하고 ‘탈중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중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오바마 정부가 주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다르지 않은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다자적 경제협력체였던 TPP와 달리, EPN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질서, 즉 민주적 가치, 투명성, 법치주의, 그리고 상호이익이라는 분명한 공통의 가치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민주국가이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필수적인 인도가 EPN 구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미국의 반중블록의 구축 명분은 더욱 확실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G7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4개 나라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²²⁾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자유민주 질서와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차이나 사회주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다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으로 중국공산당에 길들여진 듯하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복이 두려워 ‘알아서 기는’ 사대주의에 빠져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21) 조선비즈, “美, 외교부에 ‘反中 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 설명,” 2020년 6월 5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3316.html (2020년 6월 17일 열람)

22) 동아일보,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어’…韓, 美中 갈등서 딜레마 심화,” 2020년 5월 31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31/101295052/1> (2020년 6월 17일 열람)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不)원칙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을 통한 대중(對中)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명분을 제공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선 안 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교훈이다.

미국의 EPN 구상은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는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조선총독’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마땅히 중국과 사회주의가 아닌 미국의 ‘자유경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시진핑의 방한에 목매 때가 아니다. 지난 5월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의 초조함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진핑 주석의 방한 후에는 한중 관계가 “폭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²³⁾

정부와 언론의 친중 편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입장은 고무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나타난다.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보면,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드보복이 있었던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3%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60%에서 78%까지 증가한다.²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지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광양晦(韜光養晦)’의 시기를 지난 지금 오히려 그 공산 전체주의는 강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경제는 언제나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이 중공의 실체에 눈을 떴다. 문재인 정부만 ‘중국몽’에서 깨어나 굴종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면 된다.

23) 동아일보, “[인터뷰]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한한령, 올해 시진핑 방한 뒤 사실상 사라질 것’,” 2020년 6월 2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02/101320301/1> (2020년 6월 17일 열람)

24) Karl Friedhoff, Dina Smeltz, J. James Kim, Kang Chungku, and Scott A. Snyder, “Cooperation and Hedging: Comparing US and South Korean Views of China,”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ctober 15, 2019, <https://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lcc/cooperation-and-hedging-comparing-us-and-south-korean-views-china> (accessed June 17, 2020)